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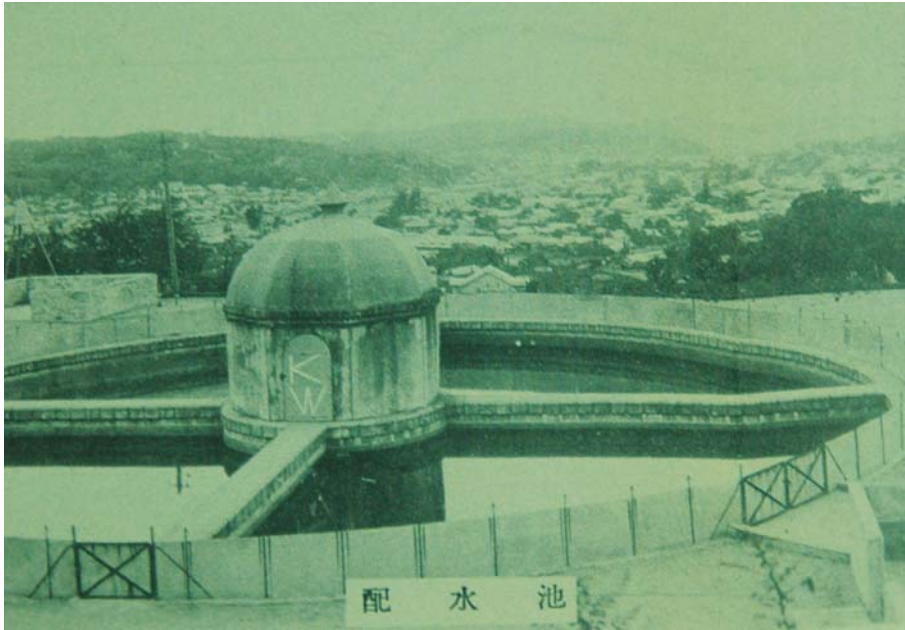
# 수돗물 일본인 61%에 공급... 한국인 대부분 우물 사용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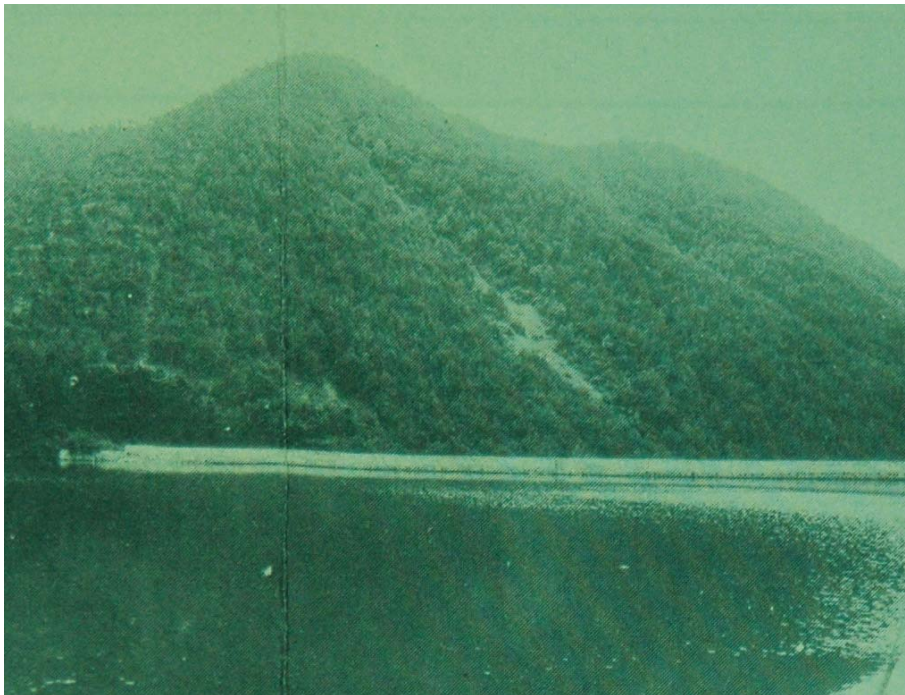


〈광주편〉

7. 日 강점기 차별의 상징 수돗물 ①



1930년대 당시 자혜병원(지금의 전남대병원) 뒤 지금의 조선대 인근 구릉지에 설치된 배수지. 낙차를 이용해 충장로 및 금남로 일대 구도심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1930년대 제1수원지의 전경. 울창한 무등산 자락이 눈에 띈다.

광주 거주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1920년의 일이다. 그 해 5월30일 수도 통수식 소식을 '매일신보'가 실었다. 이 신문은 "상수도 공사가 지난 20일경 준공하고 시내에서 약 4km 거리에 있던 수원지에 오전 7시부터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며 "10시가 채 못 돼 인산인해를 이루고 정오에 식을 거행한 뒤 오후 2시부터는 수비대(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부대)의 씨름과 마라톤 경주가 이어졌으며 오후 4시경 유감스럽게도 비가 내려 자연 폐회됐다"고 적고 있다.

매일 우물에 가서 그날 쓸 물을 길어와야 했던 당시 조선인들에게 약품으로 저수지 물을 정화한 뒤 목관이나 철관을 통해 주택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한 이 상수도 시스템은 너무도 기이한 것이었음을 틀림없다.

수도는 그렇게 강점기 일본인들의 도시 진출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설치되기 시작했고, 해방역시 일본인에 집중됐다.

우리나라의 도시 중 수도가 가장 먼저 설치된 도시는 일

1920년 해주·대구 이어 15번째로 개통

총장로 2·3가 일본인 집중 거주지 공급

1925년 전남도 운영권 광주면에 이관

본과 가까운 부산이었고(1902), 수도 경성(1908), 개항장 목포·평양·인천(1910) 등에 이어 진주(1912), 진남포(1914), 나남(1915), 진해(1915), 군산(1915), 원산(1916), 의주(1916), 해주(1917), 대구(1918)에 이어 광주는 전국에서 15번째로 수도라는 근대시설을 갖췄다.

수도가 부설되기 이전에는 우물밖에 없었다. 목포의 개항과 전남도청 및 재판부 설치 등으로 '급성장'하던 광주를 찾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 교통과 식수였다. 시가지 곳곳에 설치된 100여 개의 우물은 광주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묶어놓고, 일본인들이 이 우물을 같이 쓰기에 지역민의 반발과 마찰 등으로 여러모로 곤란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또 지세, 즉 등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광주면 시가지는 장마로 인해 광주천이 범람할 경우 그 주변이 토사로 범벅이 됐다. 그렇게 되면 우물물은 음료는 물론 세탁물로도 쓰지 못할 정도로 오염되곤 했으며, 토착민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헤쳐나갔지만 이방인인 일본인들에게는 콜레라로 대표되는 수인성 전염병 유행까지 우려해야 했을 것이다.

사실 광주가 호남 최대의 도시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은 너무 신속했다. 다시 말해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관공서, 학교, 소규모 면직공장 등 공공 및 산업시설의 갑작스러운 진입, 이방인 일본인과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렵던 광주 인근 소작농 등의 유입은 자연 그대로의 삶이 가능했던 광주면의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이었다.

수돗물과 함께 일제는 오물 및 쓰레기 처리에도 차별히 신경을 썼다.

1907년 3월 광주에 진출한 일본인 68명으로 구성된 일본



1933년 조선총독부 상수도 국고보조 서류의 광주수도배수관평면도. 1920년 당시 광주면 주요도로를 따라 부설된 수도는 검은색 선이며, 광주면은 1935년부터 42만원의 거액을 들여 3개년 계속사업으로 구도심 내 나머지 도로와 광주천 건너편까지 수도 배수관(확장구간은 붉은색 선)을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1수원지에서 뿜어나온 배수관은 지금의 조선대 부근 구릉지를 거쳐 시가지로 향하고 있으며, 경양방죽과 광주천의 형태도 살펴볼 수 있다.

인회는 의무적으로 시가 청소로 나섰으며, 1914년 4월 위생 조합을, 1915년 '한국인도 포함하는' 광주의위생조합을 만들었다. 이들은 매주 1~2차례 시가지를 순회하며 쓰레기를 치우고 인부를 사 대소변을 동문 밖으로 운반, 일반비료로 써 농가에 판매하는 일을 맡았다. 또 일본인들이 썼던 공동 우물 6곳을 유지·보호하는 일도 했다. 전남도는 이들 우물 설치 및 운영비를 보조했는데, 우물 6곳은 경무부 앞(급수 호수 69호), 서문 내(203호), 북문 내(283호), 읍문 내(247호), 소학교 앞(37호), 서방면(300여 호) 등이 있었다.

전남도는 1917년 2개년에 걸쳐 지방비 12만7176원(국비 보조 6만2500원)을 투입, 식수 위생 문제와 보급 불편 등을 시달렸던 일제강점기 광주면에 수도를 부설하기로 한다. 그 해 6월13일 공사에 착수하는데, 마침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물가가 급등, 공사비가 21만4451원(국고 보조 13만228원)으로 증액되면서 애초 목표보다 2년 늦은 1920년에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급수에정구역은 광주면 일원 64만평, 급수에정인구는 1만명이었다. 1일 1인당 일본인 3입방척(83.49ℓ), 한국인 1.5입방척(41.745ℓ) 등 1만9500입방척(54만2685ℓ)을 급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자혜병원(지금의 전남대병원) 뒤 구릉지(조선대 부근)에 설치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보내면 총장로 2가와 3가 사이의 경계점의 분관을 중심으로 설치된 배수관을 통해 가정이나 상가에 공급됐다. 급수구역 내에는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설사 한국인은 이 구역 내에 있더라도 공급액은 일본인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 1만평을 급수에정구역으로 상정했으나 실제로 수도를 공급받은 가구는 439호에 불과했으며 송수관 재료를 나무인

목관으로 해 파손 및 누수, 공급 중단이 반복된다. 이에 따라 매년 이를 고쳐나기엔 급급했으며, 이후 광주면이 읍, 부로 성장해나가면서 수도 설비를 늘려갔다.

1925년 광주면은 전남도지방비로 운영됐던 이 수도를 자체 운영하기로 하고, 시설운영권을 넘겨받았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상수도 점검철(1925)'에 따르면 급수호수는 1920년 439호(일본인 380호 한국인 54호 외국인 5호), 1921년 542호(일본인 474호 한국인 62호 외국인 6호), 1922년 612호(일본인 536호 한국인 74호 외국인 2호), 1923년 711호(일본인 606호 한국인 97호 외국인 8호)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급수구역인 광주면(원촌리, 교사리, 향사리, 양림리, 유림리 등 제외) 내 거주하는 일본인이 993호, 한국인 2315호, 외국인 19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인 가운데 수돗물을 받은 호수는 61% 이상인 반면 한국인은 4.2%였다.

전남도는 이 서류에서 수도의 성격상 지방비 경영을 폐지함과 동시에 광주면에 이관 경영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1924년부터 실시한 수도송수관 개수공사가 끝나 수도 경영에 의해 매년 수천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청·전라남도청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의 쇠퇴,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